

고용노동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창출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 '21년 평가등급 : 양호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시 1인당 年900만원(월 75만원, 최대 3년 간 2,700만원) 지원으로 청년고용촉진

□ 예산 및 재원: 고용보험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91,900	1,426,960	1,425,753 (99.9%)	1,201,802	209,902	21.2

□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구 분	'20년	'21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9만명(신규 9만명) 지원	38만명(신규 9만명) 지원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105,882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4.1%,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62.9%를 차지함.
- (성별)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52.2%로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47.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청년(96.2%)의 지원 비중이 높고, 중년(3.8)도 일부 비중을 차지함.
 - * 지침상 지원대상은 만 15~34세 청년이 지원대상이나,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 가능(최고 39세로 한정)

〈표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창출형 전체	168,420 (100.0)	95,056 (56.4)	73,364 (43.6)	130,231 (77.3)	17,890 (10.6)	11,557 (6.9)	8,662 (5.1)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05,882 (100.0)	55,296 (52.2)	50,586 (47.8)	101,888 (96.2)	3,994 (3.8)	0 (0.0)	0 (0.0)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주2: 만 15~34세 청년이 지원대상이나,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최고 39세로 한정)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15,182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4.5%를 차지하며, 고용창출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52.2%를 차지함.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99.3%)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도는 0.5%로 매우 낮은 편임.
- (산업별) 서비스업(71.8%)의 참여 비중이 높고, 제조업(24.1%) 및 건설업(3.8%)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창출형 전체	29,097 (100.0)	28,362 (97.5)	452 (1.6)	7,507 (25.8)	1,468 (5.0)	19,758 (67.9)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5,182 (100.0)	15,083 (99.3)	78 (0.5)	3,661 (24.1)	572 (3.8)	10,904 (71.8)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1)	기업생존률2)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창출형 전체	73.1	29.3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77.2	28.4	/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다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인 점, 직전년도 채용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해 고용증감률이 과소 측정될 수도 있음)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표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창출 전체	4.18	4.18	4.18	4.37	4.22	4.16	3.98	4.17	4.26	4.16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4.05	4.05	3.96	4.23	4.00	3.92	3.73	3.92	4.17	4.03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창출: 지원대상(23.4) > 지원수준(13.8) > 지도/관리(10.4) > 지원기간(10.1) > 신청절차(9.7) ; 없음(32.6)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창출: 신청절차(11.5) > 지원기간(5.0) > 지원수준(4.9) > 지원대상(4.4) > 지도/관리(2.4) ; 없음(71.7)

3) 추천 의향
 -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 창출: 4.22점, 추천(80.1=33.9+46.2) > 보통(16.8) > 비추천(3.1=2.2+0.9)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사업의 중요성

- 노동시장 상황이나 정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중요성이 상당 부분 인정됨
 - 국정과제, 국가/범부처 수준의 중·단기 세부과제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연기 또는 축소된 최근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목표가 적절히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위기에도 청년의 장기근속 및 인적자원 축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자리사업 성과

- 본 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서 고용률 개선, 중장기적 인력양성 등 노동시장 관점에서 기여한 바가 있음
 - 본 사업은 구인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청년을 연계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청년층 고용충격을 완화
 - 앞서 언급했듯이, 본 사업은 부처 및 범정부적 인력계획 등 일자리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계획되고 운영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이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청년을 연계하는데 기여하였음
 - 본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더불어 채용기업과 취업 청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인지도와 정책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의 청년고용정책 인식 조사 및 제언('19.12. 한국고용정보원)

□ 운영의 적절성

- 본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계획 대비 추진의 충실성 등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인정됨
- 본 사업은 당초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신규참여 추이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집행점검한 것으로 확인됨
- 국정과제로서 본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담당인력의 증원을 확보하는 등 범부처간 협업이 일정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재원은 지역, 업종, 기업규모별로 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확인됨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언택트 방식의 청년 채용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등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1차 추경 등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청년층 고용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제도 개선노력

- 본 사업은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기타 평가결과로부터 제시된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외부의 개선의견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제도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됨
- 지방관서 사업담당자 중심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질의 기업 취업 지원 방안 마련 및 기재부 및 교육부 등 타부처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
- 전년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브로커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중손실 우려 완화를 위해 최소 6개월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관련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특성화 지표

- 본 사업은 특성화 지표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업의 전년 대비 청년고용 증가율’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음
-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본 사업의 목표를 고려했을 때, 제시된 특성화 지표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